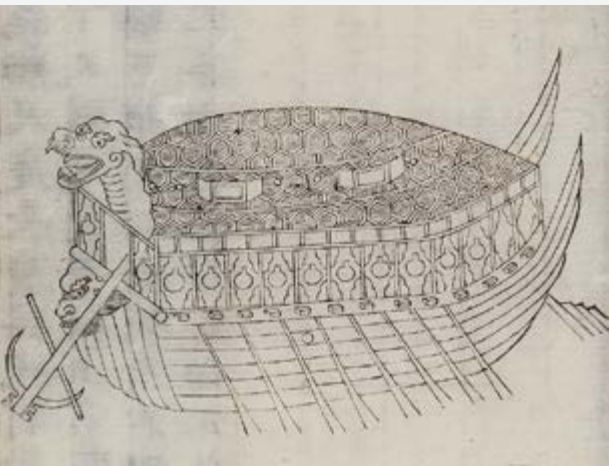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4월 「이달의 기록」 주제로 충무공 이순신 선정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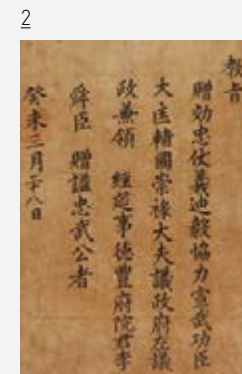
●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에 기록되어 있는 전라좌수영귀선 (1795년,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후손에 전해질 구국(救國)의 영웅이다. 수많은 기념일 중 유일하게 특정 인물이 태어난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인 4월 28일을 이순신 장군의 애국과 충의를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1967년 기념일로 제정(문교부령 179호)하였고, 1973년에는 법정기념일에 포함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28)을 계기로, 4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충의로 바친 일생, 충무공 이순신을 기린다”로 정하고, 소장 기록물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해군사관학교박물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기록물까지 한자리에 모아 4월 28일부터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4건(동영상 8, 사진 21, 문서 1, 유물 3, 고신문 1, 유물 10)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현양사업 및 유물·유적 관련 기록물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기록물 중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소설 '수군의 제일 거룩한 인물 이순신전'은 국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민족적 영웅의 출현을 열망하고 있었던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현충사의 모습이 실린 기념우표도 눈에 띈다.

- 충무공 동상 제막식-부산(1955), 현충사 조경(1974), 진해군항제 및 거북선 모형 공개(1992) 등 동영상 8건
- 한산대첩 기념제전 행사 시가행진(1962), 제423회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1968), 진남관 전경(1970), 한산도 제승당(1985) 등 사진 21건
- 아산 이충무공 난중일기 및 유물 국보 지정의 건(1959) 문서 1건
- 한산대첩 제370주년 기념우표(1962), 현충사 중건 준공 기념우표(1969) 등 우표 3건
-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소설 '이순신전'(1908) 고신문 1건
- 이순신 장군 장검(1594), 영의정 증직교지(1793), 이순신 장군 영정(1953) 등 유물 10건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현양사업은 그의 사후부터 꾸준히 전개됐다. 이순신 장군에게 높은 관직 부여하거나, 사당을 건축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인조는 1643년 이순신에게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현종은 1663년 남해와 통영에 있는 이순신 사당에 '충렬사(忠烈祠)'라는 편액을 내렸다. 또한 숙종 32년(1706)에는 충청도 유생들이 조정의 허락을 받아 아산에 사당을 설립했고, 1707년 숙종은 사당에 '현충사(顯忠祠)'라는 현판을 내렸다.

1 「이충무공전서」: 1795년 정조의 명으로 이순신 장군에 관한 각종 기록들을 규장각에서 모아 엮어 14권 8책으로 간행했다(1795년, ©현충사관리소).

2 「충무공 증시교지(忠武公 贈諡敎旨)」: 1643년 인조가 이순신 장군 생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충무(忠武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린 교지이다 (1643년, ©현충사관리소).

3 「난중일기」 초고본(1592~1598년, ©현충사관리소)

특히, 정조 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추모 사업이 절정에 달하였다. 1793년 정조는 “충무공처럼 충성심이 뛰어나고 혁혁한 무공을 세웠음에도 그 사후에 아직 영의정으로 추증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라며 이순신을 영의정에 추증하는 교지를 내렸고, 1794년에는 친히 비문(碑文)을 내려 「어제신도비(御製神道碑)」를 세웠으며, 1795년에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각종 기록들을 엮은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를 규장각에서 간행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한 민족적 영웅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며 다수의 전기(傳記)가 발간됐다. 대표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수군의 제일 거룩한 인물 이순신전'이라는 역사소설을 연재했고, 소설가 최찬식은 1925년에 『리순신 실기(李舜臣 實記)』를 저술했다. 한편, 1931년에는 충무공 종가(宗家)의 가세가 기울어 이순신 장군의 묘소와 위토(位土)가 경매로 일본인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충무공유적보



1 해군 창설 10주년 기념우표(1955년)

2 한산대첩 제370주년 기념우표(1962년)

3 현충사 중건 준공 기념우표(1969년)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존회'가 조직되어 동아일보사와 함께 성금을 모금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충무공 종가 빛 2,400원의 약 7배에 달하는 16,000여 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후, 유적보존회는 충무공 종가의 빛을 갚고 남은 돈으로 1932년 현충사를 중건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구국(救國)의 영웅을 지키고자 하는 민족 혼(魂)을 발휘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제막식(진해, 1952년)

2 제3회 한산대첩 기념제전(1964년)

3 현충사 성역화 준공식(1967년)

4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제막식(서울, 1968년)



3



●● 현충사 성역화 공사 모습(1968년)



●● 현충사 이순신 장군 묘(1969년)



●● 이순신 장군 전승비(해남, 1977년)

1966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충남 아산 현충사의 성역화 사업이 추진됐고, 1968년에는 서울 광화문에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충무공 동상이 세워졌다. 1970년대에는 한산도 제승당(制勝堂), 여수 진남관(鎭南館) 등 충무공 유적 정화(淨化)사업이 진행됐다.

1980년 해군에서 임진왜란 당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한 거북선을 최초로 건조했으며, 1998년에는 충무공 순국 400주년을 맞아 충남 아산에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등 기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인인 이순신 장군 관련 기록을 발굴·정리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애국하는 마음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복 이후에는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정신적 지주로서, 이순신 장군을 민족적 성웅(聖雄)으로 추앙하는 사업이 진행됐다. 1952년 진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순신 장군 동상 제막식이 열렸고, 1953년에는 장우성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의 봉안식이 현충사에서 거행됐다. 이 영정은 1973년에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어 화폐와 교과서 등에 널리 쓰여 졌다.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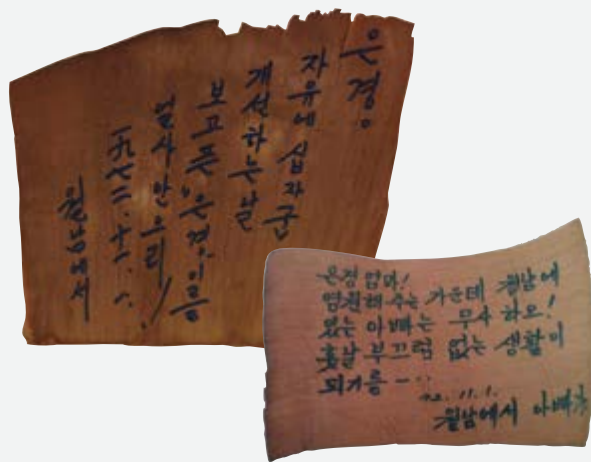
국가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5월 「이달의 기록」 주제로 ‘가정의 달’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 제57회 어린이날 행사(1979년)



● 월남 파병 군인이 가족에게 보낸 바나나 잎 편지1(1972)

부모-부부-자녀. 이 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을까. 가족관계 법정기념일인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이 모두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부모와 함께한 어린아이의 함박웃음, 부모님 가슴에 달린 빨간 카네이션, 부부가 주고받는 사랑의 선물은 우리가 지켜 보아온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가정의 달”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5월 19일부터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2건(동영상 8, 사진 25, 문서 3, 우표 4, 편지 2)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관련 기록물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 중 월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정영환 씨가 1972년 아내와 자녀에게 보낸 바나나 잎 편지가 주목된다. 이 편지는 총탄이 오고 가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도 가족을 그리워하며, 마른 바나나 잎에 한 자 한 자 정성을 담아 고국의 가족에게 사랑을 전했다는 점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또한, 1950~60년대 실시되었던 우량아 심사 및 시상 모습이 담긴 사진과 1958년 우리나라 최초로 드넓은 창공을 운행하는 비행기 내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의 영상 등 추억 속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어머니날 기념행사(1956), 공중 결혼식(1958), 5월은 가정의 달(1971) 등 동영상 8건
- 어린이날 기념식(1953), 어린이 건강심사 입선아 표창식(1958), 대한민국 어머니헌장탑 제막식(1966), 양지회 주최 어버이날 행사(1973) 등 사진 25건
-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1957), 경로헌장안(1982) 등 문서 3건
- 제20회 어린이날 기념우표(1949), 경로사상 양양 우표(1989) 등 우표 4건
- 월남 파병 군인 정영환이 가족에게 보낸 바나나 잎 편지(1972) 편지 2건

어린이날은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선생이 주도한 색동회에 의해 1923년 5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1928년부터는 날짜가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됐고, 일제의 탄압으로 1937년 이후에는 기념행사가 금지되기도 했다.

광복 이후,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열렸으며, 1957년에는 어린이 육성의 기본정신을 밝히고 어린이의 천부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제정됐다. 헌장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한다” 등 9개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제20회 어린이날 기념우표(1949년)



● 어린이헌장 선포 20주년 기념우표(1977년)

● 제35회 어린이날 행사(1957년)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 어린이 건강심사 입선아 표창식(1958년)



1973년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념일이 됐고, 1975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편, 어린이날에는 운동회, 우량아 선발대회, 가정행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어린이를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어버이날은 1955년 8월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1955년 이전에도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날을 기념했으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1956년부터 국가적 행사로 어머니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 ● 어머니날 기념식(1957년)



● ● 제1회 어머니 대운동회(1957년)



● ● 제6회 어린이날 가정행렬 경연대회(1972년)



● ● 어머니날 기념 위안대회(1958년)

어머니날 기념식에는 모범 어머니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는데, 1950년대에는 전쟁미망인으로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교육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어머니, 3명 이상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어머니, 10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 등에게 상이 주어졌다. 1973년에는 어머니날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조상과 어버이 전체에게 감사하는 날로 승화시키기 위해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꾸었다.

● ● 대한민국 어머니헌장탑 제막식(1966년)



● ● 양지회 회원들 어머니날 청운양로원 방문(1971년)

특히, 1982년에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로사상의 퇴보로 인한 노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10회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헌장'을 제정·공포했고, 65세 이상 노인의 국·공립 공원과 시내버스의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제도를 확대·시행했다. 헌장에는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5개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부부의 날은 1995년부터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됐고, 2007년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관련 기록을 발굴·정리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가족을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고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6월 「이달의 기록」 주제로 ‘호국보훈의 달’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 국군9사단 53탱크대대 백마고지 전투 활약상(1952년)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현충일, 6·25전쟁일 등이 포함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했던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달의 기록」 주제를 “호국보훈의 정신, 기록으로 되새기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6월 20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1건(동영상 6건, 사진 24건, 문서 5건 등)으로, 6·25전쟁에서 국군·UN군·학도의용군·여자의용군의 활약상과 현충일, 6·25전쟁, 제2연평해전 기념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 6·25전쟁의 기록(1957년 제작), UN군과 주민들의 흥남부두 철수(1980년 제작) 등 동영상 6건
- 미 제5해병대 낙동강 진군(1950), 국군 평양입성 환영대회(1950), 여자의용군 행진(1952), 학도의용군 전사자 유골 입성 및 봉모식(1964) 등 사진 24건
- 휴전협정문(1953), 북한군 전투명령 1호(1950, 전쟁기념관 소장) 등 문서 5건
- 제6회 현충일 기념 우표(1961), 6·25 상기 25돌 특별 우표(1975) 등 우표 4건
- 6·25전쟁 당시 군인이 장인·장모에게 보낸 편지(1950), 표창장(1953) 각 1건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을 시작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간 계속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이었다. 초반의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에 임하는 아군의 비장한 모습, 1950년 10월 국군의 평양입성 환영대회에서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 장면, 대규모 피난민들 모습 등 6.25전쟁 당시의 장면들을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2세의 어린 북한군 포로와 유엔군이 함께 찍은 사진은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 북한군 전투명령 1호 : 1950년 6월 22일 북한군 제4사단이 발행한 전투명령 문서이다. 명령서에는 “인민군 2사단은 우로는 제1군단 예하 제3보사와 좌로는 제12사단이 병행 공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남침의 증거가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전쟁기념관)



●● 미 제5해병대 낙동강 진군(19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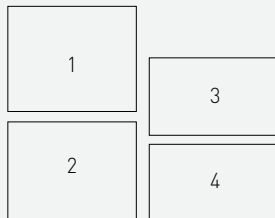
●● 낙동강을 주시하는 군인들(1950년)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1 평양입성 작전회의(1950년)
- 2 한강을 건너는 수많은 피난민들(1950년)
- 3 다리를 건너는 피난민들(1950년)
- 4 국군 평양 입성 환영대회(1950년)



● ● 여자의용군 훈련(1952년)

한편, 6·25전쟁에는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펜 대신 총을 든 학도의용군과 여자의용군의 참전과 희생이 이어졌는데, 이들의 구국 정신은 귀감(龜鑑)이 될 만한 것이었다. 학도의용군과 여자의용군의 훈련 모습을 통해 구국의 일념으로 헌신했던 이들의 기개를 엿볼 수 있고, 학도의용군이 참전한 대표적인 전투인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학도의용군 48위(位)의 유골 봉모식(奉慕式)이 1964년 4월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어 이들의 넋을 기리기도 하였다.



● ● 여자의용군 행진(1952년)



● ● 6·25 항공총궐기일 기념분열식 참관 관계자들(19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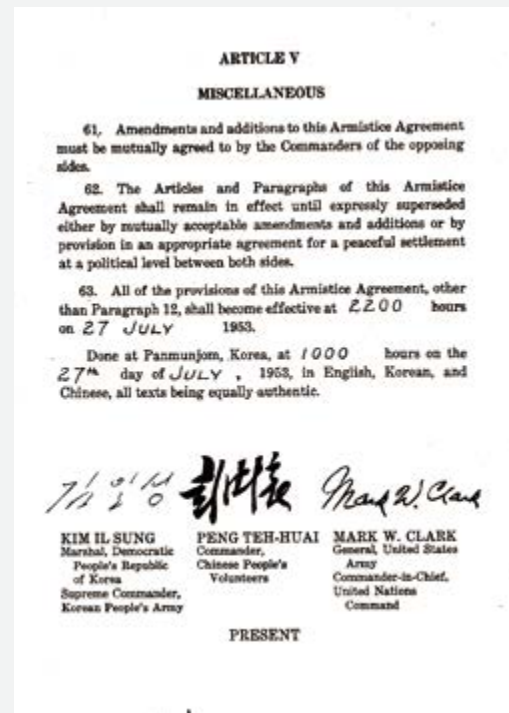
또한, 6·25전쟁에 참전 중이었던 국군 병사가 처가에 보낸 안부 편지에는 “장모님의 염려 덕택으로 잘 지내고 있으며, 말은 바 군복무에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 전장(戰場)에서도 가족을 안심시키고 소임(所任)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엿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문서도 주목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 실시에 대하여 협력하지 아니한다”, “전투행위 중지에 불응하라, 한국 군대는 현재의 전투행위를 계속하라”라는 극비 구두 하달 지시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휴전에 강력히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휴전협정은 우리 측의 참여 없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북한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팡덕회(彭德懷)의 서명으로 성립되었다.

6·25전쟁 관련 행사는 1951년 6월 25일 ‘항공(抗共)국민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는 ‘6·25전쟁일’이라는 명칭으로 기념일에 포함되어 있다. 현충일은 6·25전쟁 중 산화한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6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효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애국선열 추모로 확대되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휴전협정문 : 1953년 생산된 휴전협정문 사본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문서이다.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북한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팡덕회가 서명함으로써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협정문은 서언, 전문 제5조 제63항, 부록 제11조 제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죽미령 유엔군 참전탑 추도식(1959년)



- 학도의용군 전사자 유골 입성 및 봉모식(1964년)

- 제1회 현충일 추도식 참석자 걸어가는 행렬(1956년)



한편, 6월은 우리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이 서해상에서 충돌한 1·2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달이기도 하다. 특히, 제2차 연평해전(2002. 6. 29.)에서 우리 군은 전사자 6명, 부상자 18명으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서해교전으로 불리던 이 전투를 2008년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이들의 고귀한 호국 정신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현충일, 연평해전 등 관련 기록을 통해 나라를 지켜낸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기록연구사 진로체험” 학생·학부모에 큰 관심



●● 전시관을 견학하고 있는 진로체험교실 참가 학생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산하 기록관 소장 기록물과 각종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자녀들의 안정적이고 유망한 직업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과 서울·부산·대전 등 4개 기록관은 초·중학생이 진로탐색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진로 체험교실은 청년층의 취업난과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자녀들의 진로선택에 관심이 높아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미래 유망직종으로 손꼽히는 기록관리*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록관이 전문 인력과 소장 기록물을 활용하여 개발했다.

*기록연구사는 기록물 생산부서와 기록관,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연계, 해당 공공기관 기록물의 보존·활용·이관 등 전담관리 한다. 기록연구사는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록관리학·역사학·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채용한다.

국가기록원이 올해 마련한 프로그램은 8종으로 총 241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소장 기록물과 기록원 업무를 소개하는 강의와 기록보존상자 만들기, 기록물 복원 등으로 구성되어 기록관리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심으로, 서울기록관은 종이기록물 복원 등 실제 업무를, 부산기록관은 조선왕조실록을 등 주요 소장기록물을 소재로, 대전기록관은 기록연구사와의 대화를 통해 기록관리를 소개하는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1월 세종시로 이전한 대통령기록관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20회 7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대통령 선출과정 등의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게 하고,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과 강원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서울기록관은 찾아오는 체험교실 40회, 찾아가는 2회 등 총 42회 1300명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업무소개, 전문가와 대화, 실습 등을 통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구성했다.



●● 보존상자 만들기



●● 습식탁본 체험



●● 기록물 복원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는 진로체험교실 참가 학생들

부산·경남 등 영남권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기록관은 기존 운영하던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진로체험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여, 올해 85회 3,5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기록문화 및 기록관련 진로에 관한 강의와 상담, 기록물 복원체험 기록문화 전시관 견학 등으로 꾸몄다.

대전·충청·광주·전라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전기록관은 지난해 대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찾아오는 체험교실 81회, 찾아가는 13회 등 총 94회 3,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선왕조실록과 기록원 사람들을 주제로 한 특강과 보존상자 만들기 체험, 전시관 및 서고 견학으로 구성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하는 것은 국가 장래가 걸린 중요한 일로, 자유학기제 시행과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기록원-세종시 상생협력 협약 체결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양 기관의 '상생협력 협약'을 4월 5일(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이 시민에게 개방된 행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세종시를 문화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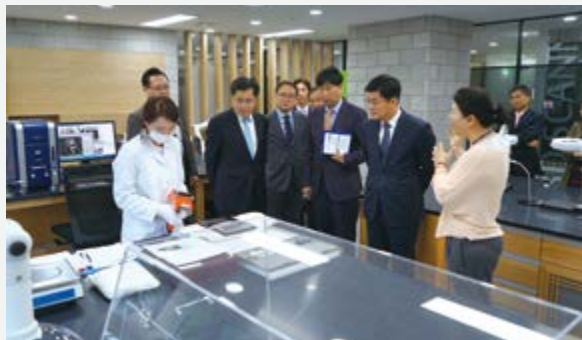
이 협약으로 대통령기록관과 세종시 간에 전시, 관광·홍보, 일반 행정 등 3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실무회의를 통해 ①「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공동전시 개최, ②대통령기록관을 포함한 세종시 시티투어 코스 등 상설 관광코스 개발, ③세종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8개의 세부 협력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소수자 초청 견학 프로그램'을 우선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인근지역의 문화·복지센터,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공동발전 상생협력 협약식' 모습

대통령기록관과 세종시 관계자는 협약식 후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진 기록물들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와 시설로 꾸며진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처리실을 관람하고, 세종지역의 민간 기록물이나 유물의 보존·복원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중앙과 지방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양 기관의 발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협력관계의 유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상호 협의를 약속했다.



● ● 기록물처리실 등 보존복원 시설을 관람하고 있는 협약식 참석 내빈들

제10기 온라인 서포터즈 나라기록네티 발대식 개최

국민생활 속 기록정책을 소개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홍보대사인 제10기 온라인 서포터즈 『나라기록네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기록원은 4월 6일 오후 2시 대전기록관에서 제10기 나라기록네티(이하 네티) 발대식을 갖고, 공모를 통해 선발된 5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온라인 서포터즈는 기록 관련학과 대학생·대학원생을 비롯해 웹툰 작가·영상전문가·파워블로거, 회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반 국민들로 구성돼 파급력과 대중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네티는 인터넷 카페·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각종 기록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오는 9월에 열리는 "2016년 ICA(세계기록관리협회)서울총회" 등을 비롯한 주요행사를 알리면서 국민생활 속에 기록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 제10기 나라기록네티
2,3 제 10기 나라기록네티 발대식 개최 : 나라기록네티는 기록 관련학과 대학생·대학원생을 비롯해 웹툰 작가·영상전문가·파워블로거, 회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0기 네티로 활동하는 김경태 씨(충남대학교 학생)은 "국가기록원에서 일반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직접 알린다는 자부심과 함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9월에 열리는 ICA 서울총회에 참여해 외국의 기록문화를 접할 수 있어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네티들은 이외에도 정부3.0의 일환인 지적관련 기록물 원문서비스 확대, 주요 기록콘텐츠 구축, 기록사랑 전국백일장, 기록관리포럼, 각종 기획전시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본인의 블로그나 SNS 활동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등 기록관리의 친절한 이웃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 홍보대사로서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기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게 하고, 우리의 소중한 기록문화를 직접 느끼고, 향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

2

3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복원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 독립기념관에 인계



● ● 복원처리 완료된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전달식 모습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74년여가 지나면서 크게 훼손되었던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국가지정기록물 제4호, 등록문화재 제524-2호, 이하 편찬원고)를 복원하여 소장기관인 독립기념관에 인계했다. 국가기록원은 4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서울기록관에서 독립기념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계식을 갖고 복원된 편찬원고를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에게 전달했다.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현재 '매한 윤봉길 월진회 이사',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독립기념관장이다.

이번에 인계된 편찬원고 'ㅎ'편은 조선어학회가 1929~1942년까지 '조선말 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했고, 곳곳이 훼손되어 독립기념관이 복원을 의뢰한 것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처리를 완료했으며,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여'편을 복원·복제하여 인계한 바 있다.

이날 인계식에서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은 "선열들의 시대정신이 담긴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가 국가기록원의 복원으로,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이자 등록문화재 제524-2호인 편찬원고를 우리 경험과 기술로 복원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복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 중요 기록물이 후대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말 큰 사전 편찬원고는 일제강점기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보존하고자 했던 국어학자들의 염원과 열이 녹아 있으며, 최초의 우리말 대사전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역사적, 국어학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자료이다. 이 원고는 조선어학회 사건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1945년 9월 8일에 경성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발견되었으며, 한글학회는 1947년 이를 바탕으로 『조선말 큰 사전』 2권을 간행하였으며, 3권부터는 『큰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1957년까지 총 6권을 간행하였다.



● ● 『조선말 큰 사전』 편찬원고 ㅎ편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 등록문화재 제524-2호)

● 국가기록원 '거버넌스 포럼' 개최 협업 체계·표준화 전략 모색

공기업·지자체·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들과 학계 및 국가기록원 기록정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종 기록이 조직의 목표 달성과 업무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정보적 자산임을 확인하고, 민·관·학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기록관리 표준을 만들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현장과의 협업·소통을 통한 기록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4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민·관·학 기록관리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기록관리 표준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전자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발전 방안 모색」과 「현장과의 협업·소통 체계 구축, 표준화 전략 마련」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민·관·학 기록관리 전문가 6명의 주제 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이 있었다.

먼저, 전북대 윤은하 교수는 기록관리 국제표준의 흐름을 고찰하고, 지난 2001년 제정된 기록관리 일반원칙에 관한 국제표준 ISO 15489는 증거적 가치로서의 기록보존을 위한 기록관리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지만, 조직의 업무성과와 연관되는 효율성 증대의 측면에서는 미흡했으며, 특히 2006년 이후 급변한 클라우드 시스템 등 웹 2.0 단계의 기록관리 전략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록을 조직의 중요한 정보자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록관리자는 증거적 가치의 기록보존을 뛰어 넘어,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업무의 흐름과 정보의 유통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기록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담당인 이점마 사무관은 2001년 제정된 기록관리 국제표준(ISO 15489)의 개정작업이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곧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ISO 15489는 기록은 증거적 가치뿐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조직의 중요한 정보자산임을 강조하고, 향후 기록관리자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록 요구사항(Record requirement)을 결정하여야 하며, 항상 기록의 이용과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기록물의 생산단계 이전부터 조직의 업무활동과 기록 관리의 연계에 중점을 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연경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개발·보급된 국내 기록물관리표준의 평가와 활용촉진방안 발표를 통해, 2005년 15개에 불과했던 국내 표준이 10년 만에 66개로 증가하여 양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고, 특히 2009년



● ● '2016년 기록관리 표준 거버넌스 포럼' 모습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부터 국가기록원과 각급 기관이 참여한 표준화작업반의 활동으로 수요자 참여형 표준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기록관으로 기록물이 이관되기 전 단계인 기록물 생산기관(처리과)의 기록 생산·관리의 통제를 위한 구체화된 표준 제시와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국제기록관리협회(CA) 및 해외 각국의 표준화정책 및 실무표준에 관한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기록관리를 유도하고 나아가 우리 기록관리 표준의 해외전파를 통해 기록관리시스템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은 “현재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국제표준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리더로 활동하고 있어 우리의 기록관리 노하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함으로써 기록관리 한류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협업·소통·공유를 촉진하는 도구인 ‘표준’을 통해 기록관리 각 분야와의 협력을 견인하여 국내 기록관리의 질적 성장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
2

1 '기록관리 국제 표준화 해외 동향'을 발표하는 전북대학교 윤은하 교수

2 기록물관리표준의 평가와 활용 촉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연경 교수

○ 대통령기록전시관, 70일 만에 관람객 5만명 돌파



대통령기록전시관이 개관 70일 만에 관람객 5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명실상부한 교육문화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월 14일 개관식 이후 2월 16일까지 대통령기록전시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일반에 전면 공개한지 70여일 만인 지난 5월 10일, 방문객 5만명을 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하루 평균 7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결과로, 개관 초기에는 세종시 및 인근지역 시민들이 관람객의 주를 이뤘으나 최근 언론 보도와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기록전시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제로 하였으며, 관람 동선은 1층 대통령 상징관, 4층 대통령 역사관, 3층 대통령 체험관, 2층 대통령 자료관의 순으로 관람하면 된다.

관람 시간은 화~일요일(월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 10시부터 18시까지(동절기 10시~17시)로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전시 해설안내를 원할 경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http://www.pago.kr>)에서 오전 10시, 오후 2시와 4시 안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연계 진로체험학습과 농·어촌 격오지 등 사회적소수자 초청행사 등 다양한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국가기록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국가기록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간의 업무 협약 체결 모습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주요 자원이 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5월 13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갖고, 그동안 구축해 온 경험과 전문인력을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기록원이 지난해부터 종이기록시대를 마감하고 전자기록시대를 여는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에 따른 것으로, 국가지식자원이 축적되어 있는 국가기록원과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선도해 온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기로 뜻을 같이 해 이루어졌다.



●●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주요 자원이 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생산한 지 10년이 지난 45개 중앙부처와 129개 특별행정기관 전자기록 238만건을 이관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2005년 생산된 전자기록을 이관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6개 과목 13명의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전자기록 초·중·고급과정 등 4개 과정(9회)을 운영하여 미래 정보·문화산업의 주요 자원이 될 디지털 기록을 수집·보존·활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 초급 : 정보기록관리 기초역량 I · II, 정보시스템 기초
- 중급 : 전자정부 시스템의 이해
- 고급 : 전자정부 행정환경 및 정보시스템의 이해
- 전문 : 새로운 기록유형의 출현과 이슈

또한, 전자기록물 이관 급증에 대비하여 전자정부시스템의 기록물 이관에 대한 기술자문과 이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동 홍보 및 수출 지원 노하우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대의 전자정부·전자기록 관리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과제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 전자정부의 모든 최종 산물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모이게 되어 있고,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 국가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며 “정보화진흥원과 전자기록 인력 양성을 위한 초기 단계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축하는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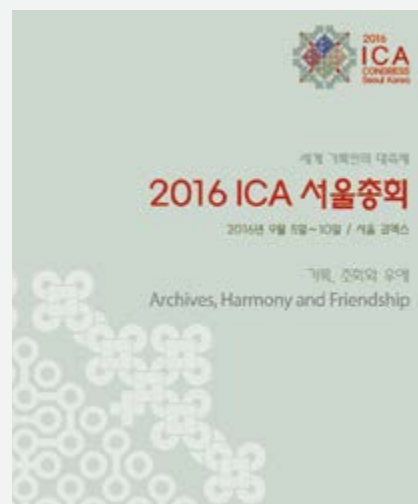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올해는 지능정보사회의 원년으로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콘텐츠인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그간 국가 ICT발전과 세계 최고 전자정부를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 장기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전자기록을 보존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0여국 기록전문가 2천명 9월에 서울서 만난다



유네스코 주관 세계 3대 문화행사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기록문화강국으로 부상시킬 '2016 ICA(세계기록관리협회) 서울총회'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ICA 공동주관으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 일원에서 열린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16 ICA 서울총회 준비기획단'은 5월 26일 D-100일(28일)을 맞아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총재관(總裁官, 실록편찬 총책임자)으로 한 성공개최 기원 봉과식(실록을 함에 넣는 전통의식)을 가졌다. 전 세계 190여 국 대표단을 비롯한 기록관련 기구, 관련 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 총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총회는 중국 및 말레이시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며, 주제인 '기록, 조화와 우애'(Archives, Harmony and Friendship)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미래 정보자원인 기록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면모를 살려 디지털기록의 중요성과 대응방향을 집중 논의함으로써, 기록관리를 또 하나의 행정한류로 확산시킬 전망이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우리나라는 2004년 박물관총회(ICOM), 2006년 도서관총회(IFLA)에 이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문화총회를 모두 개최하게 되어 문화강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기간 동안 국제회의, 특별강연, 250여 편의 학술발표, 특별세션 등의 주요행사와 함께 산업전, 기록전시회, 기록문화탐방 등도 마련된다.

기록보존의 최신 기술과 디지털 기록의 미래를 한눈에 보

여 줄 산업전에는 국내외 관련기업의 100여개 부스와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외교부 등 60여개 공공기관 부스가 운영된다. 산업전에서는 우리나라 기록관리 선진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려 기록관련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13개나 보유한 국가(세계 4위, 아시아1위)로 기록전시회에는, 『조선왕조 의궤』, 『훈민정음』, 『새마을운동』 등의 전시와 함께 전통 기록관리의 정수

라 일컫는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정과 보존 방법을 영상과 기록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국난극복과 경제발전과정, 대한민국의 미래 관련 전시가 마련된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ICA 성공기원 봉과식의 식은 실록 대신 ICA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유문, ICA 의장의 축하 메시지, 이상진 국가기록원장, 남영준 ICA 자문위원, 나라기록 네티의 성공기원 메시지를 붉은 비단에 써서 함에 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6 ICA 서울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기록관련 제도, 정책, 산업 등 제반환경을 재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기록관련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총회 개최 기간 동안 열리는 산업전을 통해 전자기록관리 등 국내 기록관련 우수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록 한류 전파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 2016 ICA 서울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 봉과식에서 고유문을 낭독하고 있는 홍윤식 장관



● 봉과식에 입장하고 있는 사관들



● 고유문을 봉인하는 모습

● 2016 ICA 서울총회 성공 개최 기원 봉과식
(앞줄 왼쪽부터 이상진 국가기록원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 전국 4개 권역 동시 개최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등 초등학교부터 일반 성인까지 각 세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록물 중 가장 대표적인 기록은 무엇일까?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제9회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을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세계 기록인들의 대축제 ‘2016 ICA 서울총회’ D-100일에 맞추어 5월 28일(토) 대전·성남·부산·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주제를 달리하여 개최된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은 올해 9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글짓기(시·산문)와 그림그리기 분야로 초등학교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매년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6 ICA 서울총회’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속의 대한민국 기록”을 주제로 백일장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가기록원은 이 날 참가자를 위해 대전·서울·부산기록관의 전시관을 개방하고 ‘역대 백일장 수상작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우수작품 선정은 주제와의 연관성, 내용의 독창성, 표현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상식은 8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대상인 장관상 9명(행자부5, 교육부4), 우수상인 국가기록원장상 60명, 특별상인 시·도지사·교육감상 60명 등 총 129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이번 백일장의 특이한 점은 우수 수상작을 작품집으로도 출간하여 학교 및 수상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ICA 서울총회 기간 동안 행사장에 전시되어 전 세계에서 대표로 참가한 기록인들에게 한국국민과 미래 꿈나무들이 얼마나 기록에 관심이 있고 기록을 사랑하는지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이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국민친화형 행사를 통해 ICA 서울총회를 사전에 홍보하고, 기록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표현하는 뜻깊은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가기록을 지켜라!” 15개 기관 합동소방 훈련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다양한 형태의 기록 정보자원이 보존되고 있는 국가기록원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즉시 진화해야 하지만,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은 불만큼이나 모든 기록물에 2차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물과 청정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특수한 화재진압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너젠(NERGEN)가스는 오염을 최소화한 청정소화가스이며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약제로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소수의 기관에 설치된 소화방식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과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는 6월 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서울기록관에서 군부대, 경찰, 한전 등 총 15개 기관 5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헬기 1대, 소방차 10대, 구급차 7대 등 총 43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세계 기록인의 대축제인 「9월 ICA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비하고, 화재로부터 중요 국가기록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서울기록관 청사 외곽 울타리를 통해 침투한 거동수상자가 고의로 방화한 산불이 기록원 건물 일부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산불이 건물로 번지면, 공공기관 최초로 설치된 수막설비(水幕設備)**를 가동하여 서울기록관 외벽 전체를 감싼 수막으로 불길을 차단했다. 그러나 수막설비 가동 중에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의 서고 내부로 불이 옮겨 붙으면, 기록물 보존서고 전용 청정소화가스(이너젠가스)를 격발시켜 화재를 원천적으로 진압하고, 건물 옥상(5층)에 대피한 직원을 굴절차로 긴급 구조하여 완강기를 이용해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훈련 후 격려사를 통해 “국가기록은 우리의 역사이자 소중한 미래 정보자원으로 함께 지켜가야 한다”라며 “이번 합동 훈련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국민이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산불 발생 시 화염 및 열기 등이 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외벽에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건물을 보호하는 설비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6·25전쟁 낙동강 방어선 작전명령서 복원 공개



● 제1사단 15연대의 연대 명령요도(1950. 8. 13.)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66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 관련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일부를 복원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복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복원해 공개한 기록물은 1950년 7월~9월까지 6·25전쟁에서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관련 작전명령서로서, 다부동 전투, 기계·안강·포항 전투, 장사상륙작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낙동강 방어선은 6·25 전쟁 시작 후 '8월15일 부산점령'을 목표로 불과 7월말에 낙동강까지 내려오는 적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지형적방어가 유리한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지역(마산-왜관-영덕) 240km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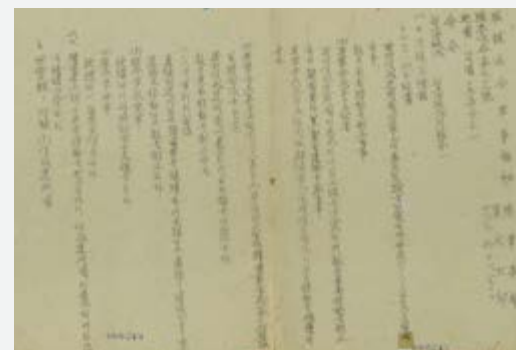
군사편찬연구소 양영조 군사연구부장은 “1950년에 국군이 생산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 방어선 관련 기록물은 매우 희소성 높고, 특히 낙동강 방어작전 당시의 전투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자료”라고 강조하고, 특히, ‘작전명령서 제174호’는 인천상륙작전 직전 후방 교란작전으로 감행된 장사상륙작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문건이며, 아울러, 당시 희생된 ‘학도병’을 의미하는 ‘유격대’를 언급한 기록이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자료 중에는 당시 정일권 참모총장이 친필로 작성한 작전명령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긴박했던 전쟁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작전을 수립하고, 지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전투의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작전명령서들은 갱지에 등사로 인쇄되어 배포되었고, 작전지도 역시 간략히 작성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전쟁 상황이나 정세가 매우 급박했음을 엿볼 수 있다.

「‘낙동강 방어선’ 형성 관련 작전명령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1호(1950. 7. 31.), 94호(1950. 8. 2.), 119호(1950. 8. 11.)



●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1호(1950. 7. 31.)

제1, 2군단에게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7월31일과 8월1일 야음(夜陰)을 이용해 낙동강 이남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



작전명령서는 제1, 2군단에게 적을 저지, 낙동강 인근으로 이동명령(제91호), 8월 3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명령(제94호), 제1사단에게 8월 12~13일에 변경된 방어선 “Y(왜관작오산(303고지)-수암산-유학산-군위-보현산)”으로 이동명령(제119호) 등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시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국군이 다부동, 기계·포항 등 낙동강 방어선 일대에서 사활을 건 방어작전을 통해, 대구를 방어하여 6·25전쟁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연이어 인천상륙작전이 성



●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19호(1950. 8. 11.)

제2군단 제1사단은 8월 12일~13일간 야암에 동지구내 “X”선으로 전진하라. 13~14일간 야암에 “Y(303고지-수암산-유학산-군위-보현산)”선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라. 각 연대는 중강된 1개 대대를 원호대(援護隊)로서 현재선에 잔치(殘置)시켜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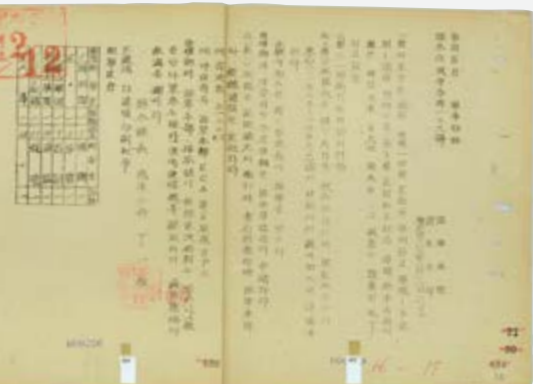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공함으로써 연합군의 총 반격 작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6·25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투이다.

「‘다부동 전투’ 관련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8호(1950. 8. 17.) 및 139호(1950. 8. 18.), 1사단 15연대 작전지도(1950. 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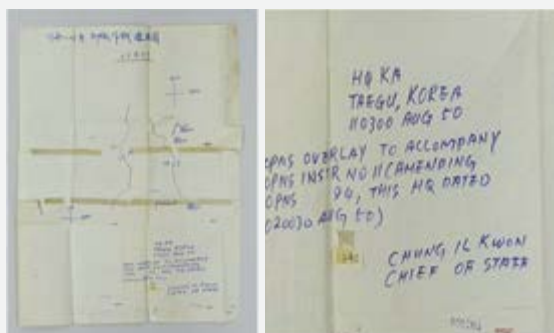
제1사단의 주저항선 확보 및 북방공격 명령(제138호), 적의 남해(군위-다부동-칠곡)기도 정황·적의 사기 저하 및 10연대의 1사단 배속·동석(東石)*이동 명령(제139호), 제1사단 15연대의 작전지도 등과 같은 상세한 전사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 동석 : 다부동 남쪽 9km 위치의 동명초등학교 소재지로 1사단 사령부 설치 장소

6·25전쟁 중 치열한 전투에 속하는 다부동 전투(1950. 8. 3.~9. 22.)는 낙동강 방어전선의 요충지이며, 최대 격전지로 대구로 향하는 길목(경북 칠곡군 가산면 일대)에서 국군 제1사단이 적 3개사단에 대응하여 벌인 전투로서, 대구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기계·안강 및 영덕·포항 전투’ 관련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16호(1950. 8. 11.), 120호(1950. 8. 11.), 134호(1950. 8. 15.)



●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16호(1950. 8. 11.)

포항지구 전투사령관은 서기 1950년 08월 11일 14:00를 기하여 작전투명도 상에 표시된 지역 내의 적을 공격 섬멸하고 그의 남하를 저지하라.

제120호는 안강에서 미군과 협동 공격 및 기계방면의 공격 계획, 병력의 이동, 제26연대 배치·포항지구 적 섬멸 명령 등을 담고 있다.

제116호와 134호에는 작전지도와 함께 적의 섬멸과 남하의 저지 명령, 수도사단의 전투 지경선(地境線)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일권 참모총장의 친필로 작성된 작전명령서가 남아 있다. 기계·안강, 포항 일대의 전투는 북한군이 포항방면을 통하여 부산으로 진출하려는 기도를 저지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전투이다.

「‘장사 상륙작전(1950. 9. 14.)’ 관련 작전명령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4호(1950. 9. 10.)

제174호는 “육본 직할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상륙 감행시켜 동대산(東大山, 포항북부 소재)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 제1군단의 작전을 유리케 하라”는 당시 정일권 참모총장의 친필명령서이다.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1950. 9. 15.)을 위한 후방 교란 작전으로 포항 북부 장사리에 주로 학도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투입한 전투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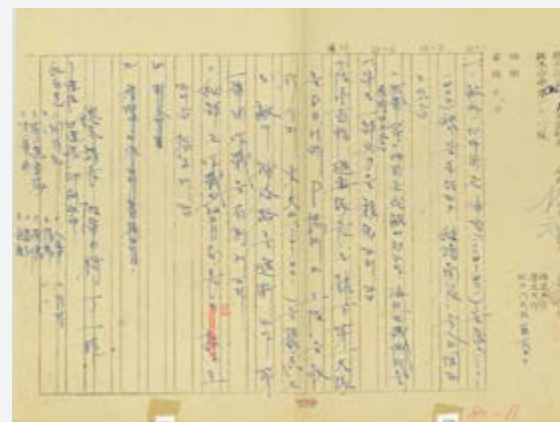
“이 전투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어린 학도병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작전명령 174호의 ‘유격부대’는 학도병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은 당시 투입된 학도병을 언급한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공식 문건이다”라고 양영조 군사편찬연구소 부장은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당시 전쟁 중의 열악한 기록재료 사용과 66년의 시간 경과로 인해 산성화되거나 물리적으로 훼손된 6·25전쟁 관련 중요 기록물의 복원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금년 말까지 낙동강 방어 전투관련 작전명령서 274매의 복원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7년 이후에도 나머지 9천 여매에 대한 수선·복원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기록물들을 통해 6·25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전투를 치른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보존된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등 6·25전쟁 관련 중요 기록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보존·전송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은 1950년~1953년 동안 생산된 작전명령서 등 282권(9,960여매)을 소장하고 있으며, 춘천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 그간 총 172매를 복원 완료했다. (2014년)



●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4호(1950. 9. 10.)

육본 직할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D일 H시 P장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동대산(東大山, 해발791m)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 제1군단의 작전을 유리케 하라(동대산 : 경북 포항시 북구 위치의 산)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조상땅 지적원도 원본처럼 생생하게 안방에서 본다

조선총독부 시절의 지적원도가 대량으로 디지털 복원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분실 등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소유권 증빙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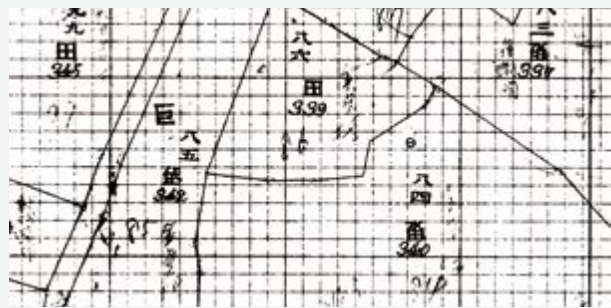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정부3.0 일환으로 토지 소유권 증빙자료인 조선총독부 지적원도 약 50여만 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오는 2017년부터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원도 디지털화 작업은 조선총독부가 1912~1918년 작성한 지적원도* 50여만 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경기(74,106매), 강원·충청(155,435매), 전라·경상(275,529매) 순으로 추진한다.



●●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작성 지적원도(1912~1918년)

*지적원도 원본은 일제때망 시 미군정이 총독부 건물에서 접수해 경산 조폐창에 일시 보관했다가 현재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다. 50만여 매의 면적은 총 99,720km²로 남한 전체에 해당된다.



●● 품질고도화 前 저해상도(82dpi) 흑백이미지



●● 품질고도화 後 고해상도(600dpi) 컬러이미지



지적원도의 지번별로 토지소유자명(505,070매 중 1,311만 건)이 표기된 사례(점선 부분)이다. 6·25전쟁 당시 토지대장이 소실된 지역에서는 이 소유자명과 호적부상 조상 이름이 같음을 확인하여 소유권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이 지적원도는 마을 별로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대지, 답, 전 등 구분), 소유자명을 기록하고 있어, 6·25전쟁 때 토지대장 분실로 그 동안 토지소유권을 증빙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6·25전쟁 이전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1979년도에 촬영된 지적원도 마이크로필름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저해상도(82DPI) 흑백이미지로 선명도가 떨어져 도면 내 각 지번의 면적, 지목, 소유자명 등 1,400만 건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이용자는 지적원도 원본이 보존된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지적원도 원본에는 조상 땅 찾기의 핵심 정보인 소유자명이 연필로 매우 흐릿하게 표기되어 있어 기존의 저해상도 흑백이미지로는 정확한 판독이 곤란하였다. 지적원도가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온라인 제공되면, 국민들은 100년 전 마을별 토지의 모습과 함께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신속하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사진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송담리, 진의리 일대 총 62매 도면 경계를 접합하여 만든 연속지적원도로써, 원 표시한 곳이 현 국무총리실 등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일대이다.



(현재) 사진은 현 국무총리실 등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일대의 항공영상과 수치지형도를 중첩한 것으로 현재의 지형을 100년여 전 연속지적원도와 비교하여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지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태국 문화부 장관,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왕조실록 참관



● 환담하고 있는 비라 태국 문화부 장관과 국가기록원 관계자들

비라 로즈포자나랏(Vira Rojpojanarat) 태국 문화부 장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태백산본) 관람을 위해 6월 22일 부산 연제구에 소재한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을 방문했다.

비라 장관은 6월 22~24일까지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제7차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였으며, 이번 관람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과 그 보존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고 싶다는 비라 장관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

현(現) 푸미폰 아둔야뎃(Phumibol Adulyadej) 국왕이 1946년부터 통치하고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인 태국은, 최근 왕실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기록문화와 높은 수준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고 자국의 경우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 한국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둘러 보고 소감을 말하고 있는 태국 문화부 장관
- 2 조선왕조실록을 관람하고 있는 태국 문화부 장관 일행
- 3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으로부터 기록관리 시설에 대해 설명 듣고 있는 태국 문화부 장관 일행

현존하는 조선왕조실록은 기타 산엽본(散葉本)을 제외하고 총 4질이며,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태백산사고본(848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정족산사고본(1,181책) 및 오대산사고본*(74책)이 보존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적상산사고본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가져가 기록보존기관인 국가문헌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오대산사고본은 일제시대 무단반출 되었다가 1923년 동경대지진 당시 대부분 소실된 후 반환되어 책 수가 적음



우측부터 태조, 세종, 선조, 영조, 정조, 철종실록이다. 태조부터 선조실록까지는 쪽으로 염색한 표지를 사용하였고, 이후부터 철종까지는 항균성이 있는 황벽나무에서 채취한 염료를 사용한 표지를 사용하였다.



세종실록 중 말미에 수록된 국가의 오례(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에 관한 지(志) 부분으로 대부분이 글로 이루어진 실록 중 이례적으로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들 실록 중 부산기록관에 있는 태백산사고본이 인쇄 및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 실록을 바탕으로 축소·영인(影印)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기록관에서는 보존 중인 태백산본 실록 중에서 문자와 함께 그림까지 수록된 세종실록(世宗實錄)과 가장 크고 미려하게 완성된 정조실록(正祖實錄) 등, 대표적인 왕대별 실록을 소개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태국의 문화부 장관이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관람하기 위하여 부산까지 손수 방문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록문화 전통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랑스런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와 태국간 기록관리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